

“관세 폭탄서 철강산업 구하자” 광양·포항·당진 공동 대응

광양시 ‘철강산업도시 단계장 긴급 영상회의’서 대응책 논의
철강 품목 대미 후속협상 촉구·위기 선제대응 지역 확대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철강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고율 관세(50%)가 유지된 가운데, 철강산업 중심 도시인 광양·포항·당진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3일 열린 ‘철강산업도시 단계장 긴급 영상회의’에서 세 도시가 각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완 광양부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황집현 당진부시장에 참석해 최근 철강이 한·미 관세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고율 관세가 유지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강국의 근간이며, 포항·광양·당진이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 고율 관세 조치가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 전체 제조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논의 결과, 세 도시는 ▲대미 후속협상을 통한 철강 품목 재논의 촉구 ▲광양·당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확대 지정 ▲포항·광양·당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 ▲‘K-Steel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조속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의 지역 맞춤형 실효성 강화 ▲4차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지자체·기업·상공회의소가 함께 참여하

는 국회 철강포럼 공동 개최를 추진해 철강산업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정완 광양부시장은 “철강산업은 광양경제의 중추이자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심장”이라고 역설하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확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라남도·국회,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9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달 21일 현지 실사를 완료하고 지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철강산업도시인 포항·당진과 함께 단계장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보성군, ‘말차’ 선진지 日 시즈오카 벤치마킹

보성 차산업 경쟁력 강화 행보
첨단 제다 기술·마케팅 등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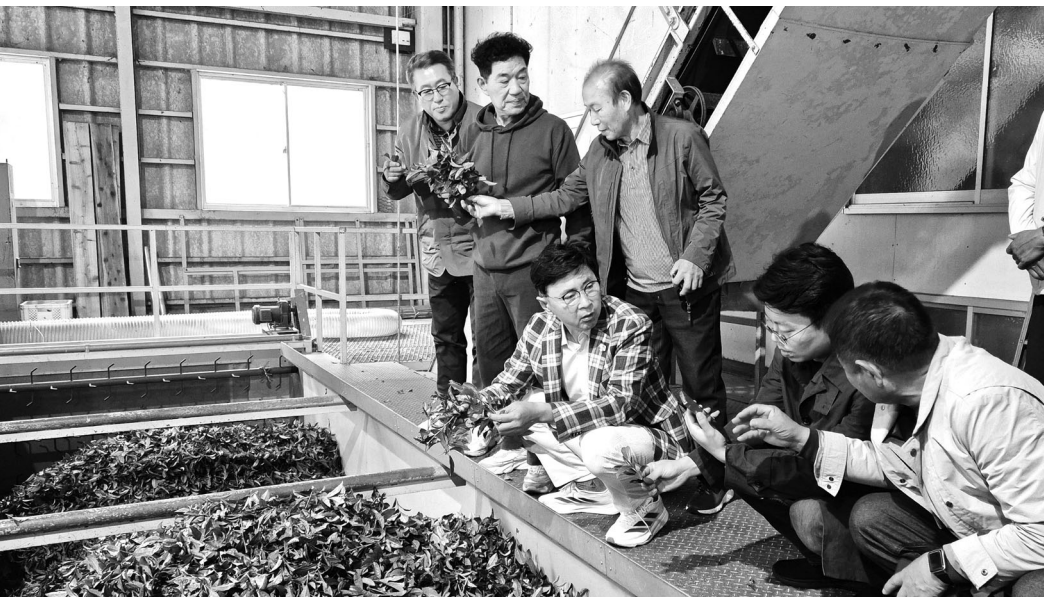
보성군이 지난 3일까지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해 ‘K-TEA 보성말차 글로벌 성장’을 위한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말차(抹茶) 시장의 성장 흐름에 대응하고, 보성 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성 차생산자조합 및 관계 공무원 등 23명이 참여해 일본의 첨단 제다(製茶) 기술, 마케팅 전략 등을 확인했다.

시즈오카는 일본 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차(茶) 중심지로, 품질 표준화, 과학적 생산관리,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확립한 지역이다.

군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말차 재배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스마트 가공·품질 관리 시스템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략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 ‘K-TEA 보성말차’ 산업의 고급화 및 세계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시즈오카현립 차업연구센터를 방문해 차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스마트 에너지 다원인 스즈카 솔라 차원과 오부치 사사바



보성군이 지난 3일까지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해 시즈오카현립 차업연구센터에서 스마트 가공·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계단식 차밭을 견학해 생산 현장의 첨단화 모델을 살펴봤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시즈오카는 전통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세계적인 차 산업 도시로, 보성이 지향해야 할 미래 방향과 닮아있다.”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선진 제다 기술과 품질관리 비결을 재해석해 보성말차 산업에 적극 반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스마트 가공시설 확충과 친환경 말차 재배단지 조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생산에서 체험·관광·수출로 이어지는 통합형 차산업 체계를 완성해 ‘글로벌 녹차수도 보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가을 끝자락 곱게 물든 순천을 달린다

8일 팔마종합운동장·도심 일원
폴코스·하프코스 등 7800명 참여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25회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가 오는 8일 팔마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폴코스(팔마종합운동장→생태문화교육원→에코촌→맑은물관리센터→순천만습지→화포항(반환)) ▲하프코스(팔마종합운동장→생태문화교육원→에코촌→맑은물관리센터→순천만습지(반환)) ▲10km코스(팔마종합운동장→남승룡로→오전삼거리→어울림체육관→풍덕교하단(반환)) ▲5km코스(팔마종합운동장→생태문화교육원→잡월드(반환))로 진행되며, 78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달리게 된다.

대회 당일인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마라톤 코스 주요 도로에서 교통이 통제된다. 팔마오거리에서 팔마종합운동장과 순천만국가정원 방향 진입이 금지되며,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맑은물관리센터 구간은 전면 통제, 도사초등학교에서



지난해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인월사거리 방향은 일방통행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25회를 맞은 남승룡마라톤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

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섬진강변에서 문화 체험하며 힐링

구례군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시즌2’ 성료… ‘숲 놀이터’ 등 인기

구례군이 지난 1일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열린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시즌2’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구례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전남문화재단, (사)큰산사람들이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문화가 일상이 되

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숲 놀이터’가 행사 시작 전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오치근·박나리 작가의 ‘자연미술랩’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황토흙으로 ‘흙도깨비’를 만드는 시간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나만의 취향이 담긴 책을 소개하는 ‘북적

북적’ 프로그램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펼쳐져 참가자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다.

이날 공연에는 가수 하림이 무대에 올라 지리산을 배경으로 산과 강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노래를 선보였으며, 쌀쌀한 늦가을 날씨에도 많은 관객들이 앵콜을 외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민들이 매일 마지막 주마다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누릴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물에서 실속 김장 준비 하세요”

24일까지 기획전전…김치숙 예약 주문 서비스 개설

고흥군 온라인 농수축특산물 쇼핑몰 ‘고흥물’이 본격적인 김장절을 맞아 5일부터 24일까지 ‘고흥엄마의 비법 공개, 머느리는 몰라도 고흥물은 안다-가격까지 절였다’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전국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김장 준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실속형 김장 기획전으로, 김장 김치 완제품부터 젓갈, 고춧가루, 마늘은 물론 청각, 새우, 굴 등 김장 재료 전 품목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구성이 특징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김치숙(양념숙)만 예약 주문할 수 있는 ‘속 단독 예약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김치숙은 ‘맛있기로 입소문 난 고흥시니어클럽 어머님들’이 고흥산 재료를 사용해 직접 무르민 수제 양념으로, 정성과 손맛이 살아 있다.

김장철마다 “양념이 제일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서비스는 고흥 현지 재료로 만든

특제 양념을 그대로 배송받을 수 있어 간편함과 전통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고흥의 신선한 재료와 정성 어린 손맛을 전국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손맛이 담긴 김치숙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따뜻한 마음까지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동시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흥산 김장 재료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물은 2019년 개설 이후 지역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테마 기획전과 소비자 맞춤형 이벤트를 운영 중이며, 지난달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시, KOVO컵 프로배구 내년 또 유치

올해 대회 문제점 개선…협업 체계 강화·경기 운영 신뢰성 확보



KOVO컵 프로배구대회가 내년 여수에서 다시 개최기로 확정됐다. 지난 9월 여수에서 열린 KOVO컵 프로배구대회 모습.

여수시와 여수시체육회가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6년 KOVO컵 프로배구대회를 여수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9월 여수에서 열린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해 2026년 대회는 여수시와 사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경기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KOVO컵 프로배구대회는 내년 하반기

진남체육관에서 개막할 예정으로 남녀 프로배구단이 참가해 약 2주간 열전을 펼친다.

여수시는 향후 연맹과 세부 일정을 확정 후 교통·숙박·안전·관광 편의 등 분야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가 다시 한번 스포츠대회 유치·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마을공동체 시군 우수센터 ‘최우수’

전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지역 교류·연대 노력 등 호평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가 최근 열린 ‘2025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시군 우수센터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78개 단체의 공모사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86회에 걸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사업 선정 이후에는 보탬e 시스템 회계·정산 교육을 운영하며, 선정된 53개 공동체 단체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을 이

어가고 있다.

아울러 인근 전남권 공동체센터(담양·영광 등)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에는 전남 22개 시군 공동체센터 워크숍과 전남 마을활동가 대화모임을 곡성군에서 주최하는 등 지역을 넘어선 교류와 연대에도 힘써 왔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은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가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곡성=박순국 기자 psk8210@kwangju.co.kr